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The Christian Approach to Fundamental Problems in Korean Public Education: Focused on Comenius's Educational Thought

서미경 (Mikyong S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Korean public education fields through the educational thoughts of Comeniu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solving problems.

First, this paper examined the factors of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thoughts in order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Comenius' educational thoughts.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of Comenius' educational thoughts show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public education fields in Korea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vealing the driving force behind educational reform and the changes in the educational paradigm caused by COVID-19. Secon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public education fields were analyzed and diagnosed by dividing them into the educational purpose, educational content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of Comenius. Third, based on the educational thoughts of Comenius, this study proposed alternative methods for solving the fundamental problems in Korean public education fields.

The diagnosis and suggestions through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Diagnosis 1. The original purpose of educating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through Pampaedia was lost. Proposition 1. The starting point to solve fundamental problems related to Korean public education is to restore the original purpose of education and provide education to become human beings based on the educational thoughts of Comenius. Diagnosis 2. In terms of education contents, it is another problem that

* 2021년 2월 19일 접수, 2021년 4월 2일 최종수정, 4월 14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CTL 연구원,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smkapples@gmail.com

divided education is provided in the Korean public education fields not complete education. The divided knowledge education led to the collapse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rather than having positive influences on understanding God, the human spirit and nature, and also rather than having beneficial effects on using the knowledge through learning correctly while making the right relationships. Proposition 2.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public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store humanity by not only human spirit and nature but teaching bible. This is the complete education of Comenius. Diagnosis 3. The test score-oriented teaching-learning methods are often used rather than teaching about the restora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pleasure of learning. Proposition 3. Comenius' teaching method with respect to humanity and pleasure in learning should be applied in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essential capability to ope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ocial capabilities such as community cooperation.

Key words : educational thought of Comenius, public education, original purpose of education, educational contents, teaching-learning methods

1. 들어가는 말: 왜 공교육의 근본적 문제 진단에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의제로 다루어진 2016년 다보스 포럼(WEF) 이후 빅데이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하이테크 기술들이 직간접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되고 있다. 코로나 19 이전 교육 분야 하이테크 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변화의 바람은 피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언택트에서 온택트 교육으로(newline, 2020.10.21),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AI를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으로, 그 변화의 바람은 폭발적이라 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하이테크 기술의 도입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학문 중심에서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공교육 정상화와 행복한 교육을 표방하며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0년 3월부터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교육 정상화와 행복한 교육을 표방하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공교육 현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 할 정도로 대학입시, 수능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MBC 뉴스, 2019.10.29.).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육의 수혜자들은 행복한 교육을 희망할 뿐이며, 교육의 정상화는 개념적 논리에 불과할 뿐이다(공교육3.0뉴스, 2020.06.15.).

팔머(Parker J. Palmer)는 현대교육의 사적 목적화(Private purpose)를 경계한다. 교육의 원천적 목적과 기능으로부터 한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 변해버린 현대교육을 경계한다. 팔머는 생명으로 이끄는 지식의 원천은 자비(compassion)와 사랑에서 유래하며, 그것은 영적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의 원천은 세계의 처음 창조시의 유기적 공동체를 재창조하려는 열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교육은 지식의 원천과 열정을 추구하지 못하고 지식이 창조하는 관계들 - 자기 자신, 이웃, 자연, 세계와의 관계 - 에서 공동체적인 사랑을 배우기보다는 개인의 욕망인 지배욕과 권력욕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Palmer, 2008: 30-51). 또한 그 동안의 교육은 지식을 통해 '지성(mind)'을 발달시키려고 노력해왔으며 지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시켰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팔머의 지적은 현대 한국 공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공교육은 교육의 원천적 목적 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었으며,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점수로 평가받는 교육시스템은 인간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지역, 학군 등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를 조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었다. 여기서 오는 교육 전제의 편견은 교육현장을 약화시키고 경쟁과 결핍, 단절과 소외의 습관을 갖게 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었다(Palmer, 2012: 180-181). 교육의 사적 목적화(Private purpose)로 비롯된 입시위주의 교육은 지식과 인지적 능력만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은 이성만 강조하여, 감성과 영성을 무시하고, 마음을 잃어버린 교육이며, 경쟁으로 타인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데 치중한다. 그러므로 입시위주교육의 학습자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학습공동체 안에서 사회성을 배우지 못한 채 정보 축적과 은행 저축식 교육(banking education)에 익숙해 있다(홍은광, 2010: 44).

한국 공교육 현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교육 격차라는 또 다른 문제까지 더하여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높고 대도시에서 사는 학생이 학습용 디지털기기를 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21.01.05). 이것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고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높으며,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공교육 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학입시 열병, 사교육, 청소년 관련 각종 사회문제 등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끝없이 제기된다.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수많은 교육개혁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었다(홍은숙, 2002).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새로운 양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The Science Times, 2020.10.22).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 공교육 현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피상적인 해결책보다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사적 목적화(Private purpose)로 인한 경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 사용되는 시대에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육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대안을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1592-1670)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코메니우스는 근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며, 당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의 민주화와 만민화를 주창하였다. 그리고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현대교육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학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공헌하였다. 둘째, 교육을 통해 인간변화의 가능성 즉, 하나님의 말씀교육을 통한 인간의 변화에 대한 교육의 힘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발달과정과 발달 단계의 교육원리를 실천적으로 적용하여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개혁하는데 공헌하였다. 셋째 최초의 그림 교과서 제작, 시청각교육 등 교과서 개발과 교육-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수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공헌하였다(유화자, 2002; 한미라, 2014).

코메니우스는 공교육에서 모든 지혜의 배움을 통해 총체적 지식을 이해하고 우주 전체에 대한 통찰

력을 가지고 피조물의 존재 목적과 효용 가치를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교육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교육의 원천목적을 강조하였다(국민일보, 2020.06.19.). 현대 공교육 현장은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간성 회복을 힘쓰는 교육보다는 실용주의적 가치가 교육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 본래의 모습인 인격성과 인간성에 대한 전 세계 공교육의 심각한 고민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시행한다.

첫째,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사상 형성 요인을 탐구한다. 역사적,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상가의 등장은 그 사상이 형성되기까지의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코메니우스가 활동하던 17세기는 근대적 사상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발전하기 시작 한 사상적 전환기였다. 당 시대는 중세 가톨릭 신앙과 종교개혁사상, 인문주의와 과학 발전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던 근대적 문화의 특징이 나타났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근대 교육에 있어 개혁적이면서도 선도적인 뿌리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형성 배경 탐구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19로 인한 삶의 양상 및 문화적 변형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양상하고 있는 공교육 현장을 위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진단한다.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현대 학교교육의 이론적 시작이며 토대가 되었다. 그의 교육사상의 대전제는 인간의 존엄성, 전인교육, 즐거운 학습에 있으며, 그는 교육의 문제에 과학적, 철학적 방법들을 최초로 적용하였다(주영흠, 2001: 234-237).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베이컨의 경험주의적 자연관과 기독교적인 자연관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코메니우스는 삶의 현장 즉, 이 세상에서의 행복, 평화, 인간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인간이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은 필연적이며 본질적인 것이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것에 의하여 살아갈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코메니우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은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이 세상은 인간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학교였다. 코메니우스에게 학교는 그 자체가 인간성 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인간성 형성의 통로였다(안영혁, 2009; 오인탁, 1980).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공교육 현장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셋째,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 공교육 현장은 원천적 교육목적 상실하였으며, 교육내용에 있어서 온전한 교육이 아닌 분절된 교육을 하고 있다. 분절된 지식교육으로 인하여 공교육 현장은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배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 보다는 교육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교육방법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배움의 즐거움과 지식의 올바른 사용(chresis)을 알려주기 보다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근본문제들에 대해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서 말하는 교육의 원천목적 회복, 온전한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인간성 존중과 배움의 즐거움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제언을 한다.

II.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형성의 요인

17세기는 종교개혁사상, 인문주의, 과학의 발전이 동시에 존재하였으며, 근대적인 사상의 발전과 문화적인 특징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시작되었던 전환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근대 교육에 개혁적이면서도 선도적인 뿌리를 형성하였다. 또한 그의 교육사상은 근대교육 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화적, 이론적 전통이 되고 있다(강선보, 김희선, 2005, 김기숙, 2003, 김선아, 2013).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사상 형성의 요인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의 기저는 형제단 교회에서 형성된 기독교 신앙이었다. 형제단 교회의 종교적, 도덕적인 이상과 가르침은 코메니우스에게 ‘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하였으며, 교육의 가치와 목적을 확립해 나가는 토대가 되었다. 형제단 교회는 그의 생각과 사고 체계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제단 교회의 신앙과 전통은 그의 전 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것과 성장을 위한 지식체계의 구성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형제단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신앙의 기반 위에서 연속적, 통합적, 근본적인 인간의 잠재력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강선보, 김희선, 2005).

형제단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개혁운동이었던 얀 후스(John Huss, 1347-1415)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신약성경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로서 15세기 중엽 보헤미아 남부에서 시작하여, 모라비아로 확산되었다. 형제단 교회의 신앙은 교회의 조직과 개인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신약성경을 모범으로 하는 것이었다. 형제단 교회는 신학자이자 설교가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반카톨릭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박해 속에서도 종교개혁 정신을 잃지 않고 발전시켜 나갔다(구경선,

2005: 44-45; 이숙중, 2006: 85).

둘째, 코메니우스는 종교개혁사상에 영향을 받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편교육에 대한 신념,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한 교육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육방법에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메니우스 생전 북유럽의 종교개혁사상은 신학적 측면, 윤리적 측면의 비판과 개혁을 모든 부분에 가했고, 교회 내부의 폐해를 개혁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의 부분도 예외는 아니었다(Monroe, 1969: 189-191). 모든 신자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종교개혁 운동의 기본 원리는 다양한 교육적 관심으로 나타났고, 신앙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 1484-1546)의 사상은 성서의 권위와 인간 이성의 판단을 강조하며, 인간이 성서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에 따라 신앙의 문제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었다(강선보, 김희선, 2005). 이러한 루터의 사상은 교육 기회 확대와 보편적으로 교육에 접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개혁자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사상에서 교육이란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이며, 하나님의 목적이었다(이숙중, 2006: 99-103). 교육에 끼친 종교개혁사상의 가장 큰 영향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시행한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는 학교제도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Monroe, 1969: 194-195). 성서를 읽는 능력과 성서의 원전을 읽고 싶은 마음, 이를 위하여 이성적 능력을 훈련시킬 필요성이 학교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강선보, 김희선, 2005). 종교개혁자들은 교육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교육 내용의 균형과 교육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상세한 개정안들을 제공하는 등 교육의 전반적인 개혁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의 사상에 있어서 종교적인 측면은 교육의 목적과 교육 조직 속에 나타나 있으며, 인문주의적이면서 실학적 측면은 교육 내용과 교육 교재 속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종교개혁사상은 종교개혁세력의 한 분파 형제단 소속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중심적인 경향이 되었다.

셋째, 코메니우스는 인문주의사상의 영향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혁이라는 전문적인 교육적 과제에 접근 할 수 있었다. 인문주의 교육의 특징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며, 아동교육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이며, 발달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내용과 교수법을 추구한 것이다.

인문주의는 인간중심적 문화운동으로 중세의 종교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고전문학과 예술에 회귀하여,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사물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중세의 금욕적인 사상과 생활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육체적, 심미적, 도덕적 속성의 조화를 추구한 고대 사상의 재생운동이었다.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Desiderus Erasmus, 1469-1536)이다. 17세기에 와서 에라스무스의 저서들이 형제단 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형제단 교회는 에라스무스를 위대한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신성한 교회의 회복을 주장하였던 신학자로 생각하

였다. 코메니우스는 일찍부터 에라스무스의 개혁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상과 저서들을 반복하여 인용하였다(이숙중, 2006: 89-90).

인문주의자들의 교육론은 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세심한 부분까지 고찰하였다. 아동 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에라스무스는 ‘어린이들의 자유교양교육(The Liberal Education of Children)’에서 당시 학교의 잔인성을 강하게 비판하였다(Murphy, 1995: 66-67). 이러한 영향으로 코메니우스는 지식 교육의 과정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반대하였다. 또한 인문주의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발달과 개인차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에라스무스는 학습은 난이도에 따른 계열화와 자연스러운 단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은 코메니우스는 아동에게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수법을 소개하였다(강선보, 김희선, 2005).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적 성찰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관찰과 실험을 통한 교육이론과 실천적인 교육방법이라는 구체적인 교육개혁에까지 나아갔다.

넷째, 코메니우스는 당시대의 과학발전에 영향을 받아 교육의 실재주의적 흐름 속에서 교육이론과 교육방법의 혁신적 원칙들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그는 교육의 문제에 과학적, 철학적 방법들을 적용한 최초의 인물이며, 베이컨의 경험주의적 자연관과 기독교적인 자연관이 교육사상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주영흠, 2001: 234-237).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자연 사물들의 과학적 관찰과 탐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하였다(이숙중, 2006: 113-114). 모든 자연 사물들의 지식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베이컨의 사상은 현대과학의 기초가 되었다. 코메니우스는 베이컨의 자연 철학사상과 자연 사물에 대한 분석적 방법론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과 실험적 방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코메니우스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지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holas Copernicus, 1473-1543)의 저서 ‘천체의 운행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elestium)을 탐독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저서들과 새로운 천문학 지식을 포함한 모든 논증들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그것들은 코메니우스의 철학적인 가치체계를 변화시켰다(이숙중, 2006: 107-113). 이처럼 코메니우스는 과학 발전의 영향을 받아 자연과 우주의 새로운 의식과 지식을 터득하였고, 이를 계기로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의 귀납적 방법으로 실천적인 교육방법론을 발전시켰다.

이상과 같은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의 발전, 코로나 19로 인한 삶의 양상과 문화의 대변혁, 이로 인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당면한 현재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교육개혁의 원동력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선제적으로 고려해야하며, 교육의 가치와 목적에 있어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에는 교육에 대한 인격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대의 교육적 환경에 맞는 교육이론과 교수법에 학습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II.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통한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진단

진단1. 범교육(Pampaedia)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교육의 원천목적 상실

코메니우스의 교육목적은 범교육이다. 범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모든 방법’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이숙중, 2006: 361). 범교육의 내용은 “네가 모르는 것을 배우라, 네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네가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행하라”로 요약할 수 있다(오춘희, 1998). 코메니우스는 교육목적 설정할 때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이며 가장 우수한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Comenius, 1910: 26),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성적인 창조물로 만드시고, 사물을 바르게 하는 일을 하도록 지적가능성을 주셨다고 말한다(차기석, 1990: 26-27).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지식을 갈망하고 교육을 통해 그 갈망이 채워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것이야 한다.

코메니우스의 범교육을 통한 첫째, 교육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든 사물의 지식을 교육받아 지혜롭게 되고, 타인을 위해 선을 행할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경건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다. 모든 사람이 지식을 교육받아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모든 사물의 존재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 바르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이숙중, 2006: 392-399). 그러므로 범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경건을 함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덕성 그리고 자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워 지혜롭고 선하며 경건하게 되어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성의 회복과 함께 자신의 생존 터전이 되는 세상에 대한 사회개혁과 구원에 있다. 코메니우스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의 이상 - 모든 사

람이 새로운 안정성의 회복과 신령한 빛에 의하여 폭력과 전쟁, 미움과 갈등이 없는 새로운 사회가 도래한다 - 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이시용, 2004). 그리고 범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진리의 빛 아래서 질서 있게 되고, 서로 조화하고 화합하는 세계가 되어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그것을 평생교육, 학교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의 최종적 산물이다. 즉,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교육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에 의해 교육목적이 제기되며 교육 활동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의미한다(정호표, 2002: 102).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서 교육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며, 교육된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인간다운 인간)의 회복이다. 교육활동에서 기대되는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인간다운 인간)하여 세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는 그의 교육사상이 말하는 원천적 교육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공교육 현장은 원천적 교육목적의 상실로 말미암아 높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출세 등이 교육활동의 최종적 산물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단절, 소외, 고통을 초래한 입시위주 교육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단2. 온전한 교육이 아닌 분절된 교육내용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이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모든 내용을 세 가지 책을 통해 주셨다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책은 자연(mundus), 인간 정신(mens), 성경(scriptura)이며, 이 책들은 단순히 인간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한 광의의 교육적 범위이며(정일웅, 2003), 세상적, 정신적, 신적인 것 모두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코메니우스에 의하면, 자연, 인간 정신 그리고 성경을 포함은 이 세 가지 책은 인간 지식의 근원이며, 그것을 배우는 곳은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감각(sensus), 이성(ratio), 믿음(fides)이라는 세 가지 눈도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감각을 통하여 자연세계를 배우고, 이성을 통하여 합리적인 것을 배우고,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오춘희, 1998: 43).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인간, 자연에 대한 완전하고 직접적인 지식을 잃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 창조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리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이 필요하다. 인간은 성경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자연과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코메니우스는 우주를 하나님, 자연 그리고 인간의 정신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문화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갖는 우주적인 삼중적(자연, 인간, 하나님) 관계를 통해 생겨나는 문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삼중적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첫째, 다른 피조물(자연)과 바르게 관계 맺어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둘째, 다른 사람들(인간)과 바르게 관계 맺어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들과 기쁨과 우정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며, 셋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 사랑과 인도하심, 자비하심으로 보호를 받으며 영원한 삶, 바른 삶으로 인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구경선, 2005: 113-116).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책에서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성경),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간 정신) 그리고 자기 아래 있는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배우라고 인간에게 감각, 이성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눈을 주셨다는 것이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책(자연, 인간 정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우주의 근원(Quelle)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교육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양금희, 2001: 81-83). 그는 이 세 가지 책의 삼중관계 안에서 교육을 통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위해 ‘지혜’(Weisheit)를 배우고, 인간 간의 사귀는 관계를 위해 ‘도덕과 예절’(Sittlichkeit)을 연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경건’(Froemmingkeit)을 함양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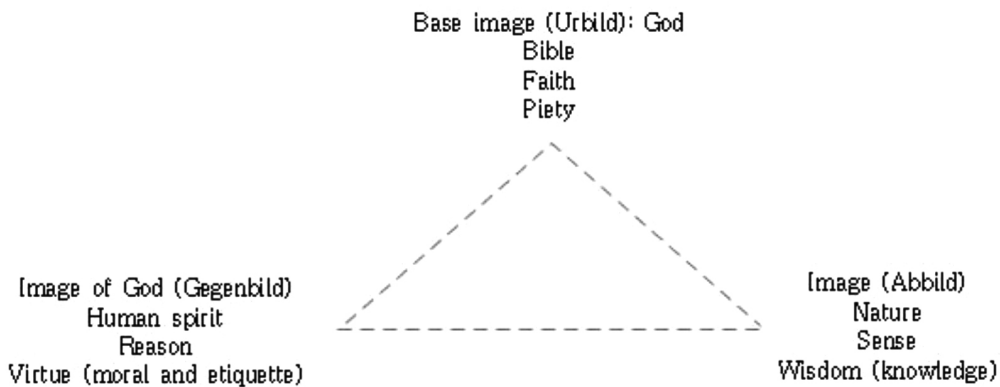


Figure 1. The triple(God, human, nature) relationship of the Comenius. Source: Yang, 2001: 81

교육목적은 교육받는 내용으로 성취되며, 교육 활동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정호표, 2002: 102).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따르면, 교육활동에서 기대되는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 회

복이며, 교육받는 내용은 세 가지 책(자연, 인간 정신, 성경)이며, 이 책들을 배우기 위해 감각, 이성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눈을 받았으며, 세 가지 눈을 사용하여 ‘지혜’(Weisheit), ‘도덕과 예절’(Sittlichkeit), ‘경건’(Frömmigkeit)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코메니우스는 온전한 교육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공교육 현장의 학습자는 감각과 이성의 눈을 사용하여 자연(과학, 물리, 생물 등)과 인간 정신(역사, 사회 등)이라는 책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사용하는 성경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즉, 지혜와 도덕과 예절을 위한 교육은 받고 있지만, 경건은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성경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자연과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자연과 인간을 바르게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배운 지혜와 도덕과 예절은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내용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며 온전한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으로 진단한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문제는 교육내용에 있어서 온전한 교육이 아닌 분절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절된 지식교육으로 인하여 공교육 현장은 삼중관계 안에서 하나님, 인간(타인), 자연을 이해하고 배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보다는 교육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온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공교육 현장은 분절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지혜롭게 돌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도덕과 예절을 배워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경건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절된 지식교육이 아닌 온전한 교육을 위해 세 가지책의 모든 교육내용이 공교육 현장에 필요하다.

진단3.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배움의 즐거움 보다는 성적위주의 교육방법

한국 공교육 현장은 역량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지침(교육부, 2015)과 함께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행경험 제공과 개별 학습자의 발달 정도를 고려한 개별적이며 차별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가이다(서미경, 2020). 다시 말해서 개별 학습자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배움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사물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습 방법은 ‘모든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올

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며,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배움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을 모든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의해서 스스로가 변화되고 교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이숙중, 2006: 382). 즉, 모든 사람이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 마음을 개조하고 변화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코메니우스는 평생에 걸쳐 인간을 완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추구하였고 새로운 교수법을 창안하여 교육기반을 형성하였다.

코메니우스의 새로운 교수법은 교수-학습의 합리적인 체계를 정립하여 비과학적, 비능률적, 일방적, 단편적인 주입식 교수법과 폭력적인 교사로부터 배우는 전통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그의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은 자연 세계의 모든 사물들의 관계와 존재의 이유를 과학적인 정신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탐구와 분석으로 발견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습 방법은 자연을 따르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구경선, 2005: 132-152). 첫째, 학습자의 자연에 맞추는 방법이다. 그것은 학습자의 성장발달 수준에 맞게 교육하는 학습방법을 의미한다. 즉, 새가 집을 지을 때에 먼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학습도 먼저 인지능력이 형성된 이후에 일정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의 순리와 순서에 맞게 교육하는 방법이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의 성장발달의 순서는 먼저 감각이 발달하고, 다음으로 이성이, 그 위에 신앙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이 순서에 맞추어서 정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은 비약적이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앞선 학습이 뒤에 오는 학습을 준비시키고 안내할 수 있도록 단계를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은 성급하지 않으며 서서히 진행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순리와 순서를 따르는 방법은 기다릴 줄 아는 방법이라고 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다. 코메니우스는 병아리가 알 속에서 충분히 자라게 되면, 알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처럼,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알 속의 어린 새는 몸이 제대로 자라고 힘이 생기기 전에 알에서 나오라는 재촉을 받지 않고, 깃털이 다 자라기 전에 강제로 날것을 강요받지 않으며, 날 수 있게 되기 전에 둥지에서 밀쳐짐을 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수자는 제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보고, 읽고, 실천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 학습자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흥미와 놀이 중심 학습이다(양금희, 2001: 107-110). 코메니우스는 학교에서의 학습은 유쾌한 것이 되어야 함으로 '학교를 우주적 놀이터로 만들자'라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 학습은 쉬운 것으로부터 흥미로운 놀이 중심으로 즐겁게 해

야 한다. 또한 학습이 흥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인격을 존중받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감각을 학습의 중요한 통로로 보았기 때문에, 학습에서 시각적 방법과 실물교육을 강조하면서,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인 세계도회를 집필하였다(신춘호, 2015). 세계도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교사가 아이에게 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Comenius, 1998: 9-10)

이상과 같은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노력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교육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지식의 올바른 사용(chresis)을 위한 것이다.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으로 진단한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 배움의 즐거움, 지식의 올바른 사용(chresis)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기다려 주는 교수-학습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성적으로 한 줄을 세워 학습자의 인격까지 판단 받게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자는 교육현장에서 인간성을 존중 받지 못하며 유쾌하고 즐거운 학습보다는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고통을 체험하고 있다.

IV.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적 제언

제언1.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의 원천목적 회복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서 교육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교육 받아 지혜롭게 되고, 타인을 위해 선을 행할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경건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은 교육의 원천목적으로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인격과 안목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성 회복과 함께 생존의 터전이 되는 세상에 대한 사회개혁과 구원에 있다. 생존의 터전이 되는 세상은 폭력과 전쟁, 미움과 갈등이 존재하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교육의 원천목적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코메니우스의 인간 이해는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자연과의 삼중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 회복과 사회 공동체의 구원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인간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며, 인간이 자연과 조화로운 병행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최적의 수단이 된다(이숙중, 1990). 따라서 코메니우스는 교육목적 설정할 때,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 공교육 현장의 교육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 교육의 원천 목적을 상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사적 목적화(private purpose)되고, 그로 인해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재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지식 추구의 목적은 출세와 지배욕에 있다. 지배욕은 출세의 수단이 되는 것이며, 권력욕이며 도덕과 무관하며 부패하기 쉽다(Palmer, 2008: 52-54). 허스트(Paul. H. Hirst)에 따르면, 교육목적은 외재적 가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내재적 가치를 드러냄으로 인간 고유의 특성(Particular feature)이 나타나야 함을 주장한다(1965, 113-140). 여기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가 구현되는 것으로 교육의 원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외재적 가치는 교육 외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지배욕과 출세와 같은 교육 외부에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 공교육 현장은 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되는 교육의 원천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지배욕과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도덕적이지 않으며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부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공교육의 제1차 교육과정기(1945-1963)부터 교육과정 변천사를 통해서 보면, 교육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개인의 모습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개인을 강조하여 왔다(백혜조·박지혜, 2014). 즉, 교육목적 설정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인격과 안목을 갖게 하는 원천 목적보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 배양이 우선시 되었던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공교육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기반 교육이다. 역량기반 교육은 교육의 본질인 내재적 가치보다 인간의 능력 배양이라는 실용성을 강조한 외재적 가치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Ashworth & Saxton, 1990; Gonczi, 1997; Hyland, 1997; 김지현, 2010: 91-92). 역량기반 교육에서 교육목적은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구에 의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외재적 가치를 교육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교육활동은 인간의 능력 배양이라는 성취의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교육에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무시하고 외재적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면 경제적 실용성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다(홍은숙, 2010). 즉, 교육활동은 인간의 능력을 자본화하는 수단이 되고 지배욕과 출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공교육 현장은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즉,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서 말하는 교육의 원천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비인간화로 치닫는 한국 공교육 현장 개혁을 위해 기독교적인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충분히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신병준·노상우, 2003). 공교육

현장의 경쟁,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빈부에 따른 교육격차 등 해마다 재생산되는 교육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은 인간다운 인간(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기 위한 교육의 원천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교육의 원천목적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제언2. 온전한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성경, 인간 정신, 자연)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따르면 교육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의 삼중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책의 모든 내용들이다.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교육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없다(양금희, 2001: 81-83).

오늘날 한국 공교육 현장은 자연(과학, 물리, 생물 등)과 인간 정신(역사, 사회 등)에 대한 내용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코메니우스에 의하면 그러한 교육은 온전한 교육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성주의와 과학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근대교육은 탈종교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의 중립성을 이유로 학교교육의 영역에서 종교교육을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배제 될수록 학교교육은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종교교육이 배제된 근대교육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소외감과 정신적 혼란,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 등 정신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성경)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강영택 외, 2013).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새로운 인간관, 지식관, 세계관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총체성을 완성할 수 있는 영성의 회복에 있다. 인간의 총체성은 총체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온다. 허스트에 따르면 총체적 세계는 수학, 자연과학, 인문학, 종교(신학), 문학, 순수예술, 철학, 도덕 등 여러 가지 '지식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Hirst, 1965). 지식의 형식은 인간의 삶,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복잡한 형식으로 마음계발에 필수적이라 한다. 듀이(John Dewey)는 총체적 지식으로써 교과는 순전히 인지적인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정서적, 종교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윤영순, 2009). 이처럼 다른 교과목과 함께 성경을 교육하는 것은 성경 교육을 통해 총체적 지식과 함께 인간의 총체성을 완성할 수 있는 영성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팔머는 영성교육을 간과해 온 근대교육의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성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차가운 사실과 이성의 세계를 보는 지성의 눈은 있지만, 영혼의 세계와 따뜻한 마음을 보는 눈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지배적이고 기계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다. 그는 영성이 결핍된 학교교육이 세계를 분석하고 조작하여 결국 타인을 지배하려는 힘을 기르게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지성과 마음이 하나 되어 세상을 보는 온전한 시각 회복을 위해 전인교육이 필요하며, 전인교육을 위해 영성 형성이 필요하며, 영성 형성을 위해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강영택 외, 2013). 성경은 인간 존재와 도덕과 삶 그리고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코메니우스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오춘희, 1998: 43).

공교육 현장에서 '성경을 교육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느냐'하는 것을 떠나 인간, 자연 그리고 하나님을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보고 전인격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신병준·노상우, 2003). 성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진리인 '명제적 진리(propositional truth)'를 말해준다.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이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인간과 역사 그리고 이 세계에 관한 객관적인 진리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본질, 죄성, 구원, 심판과 같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 인간, 자연 등의 모든 존재양식에 대한 사실이 기록된 진리의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주와 역사,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세부적 것들을 말해주기보다 명제적 진리가 기록된 책이다(성인경, 2003: 41-42). 이러한 성경을 공교육 현장의 교과교육에 포함하여 총체적 지식을 가르치고 인간의 총체성을 위한 영성회복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 교육은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 발전 할수록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코메니우스의 온전한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성경, 인간 정신, 자연)이 될 것이다.

제언3. 인간성 존중과 배움의 즐거움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한국 공교육 현장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사교육에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을 뿐 진전이 없었다. 문제풀기를 강요하고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길러주지 못한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한국 공교육의 학습자는 창의적 역량이 부족하고, 교수자는 강의하고 학습자는 듣는 수직적 학습방법에 익숙하다. 교육관련 국제기구들은 한명의 교사가 각각 다른 역량과 수요를 가진 학습자들에게 동일한 학습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수업을 교실의 본질적인 문제로 진단하며 학습의 위기로 판단하고 있다(이주호 외, 2021: 21-29).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어떤 학습자에게는 평등하지 않으며 즐겁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고통스런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메니우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고통이 없고 유쾌하고 즐거운 학습이 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창안하였다. 그것은 교수-학습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의 갑과 을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자연적 성장을 믿고 끌어주는 방법이다. 학습이 그들의 발달수준에 맞게 즐겁고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달론적 체계를 따르는 교수-학습 방법이다(한미라, 2014).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은 학습자의 자연의 순리(전인적인 발달단계)에 맞추는 개별적이며 차별화된 학습자 중심이라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학교 교실은 의미 있고 유익한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실수업이 되기 위해 개별 학습자의 성장 발달에 따른 개별적이며 차별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된다(서미경, 2020). 학습자의 발달은 인지적, 신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전 방위적인 삶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인 차원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학습자의 발달을 전인적인 차원으로 고려한 이유는 그것이 향후 학습자들의 학습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1).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의 자연을 따르는 방법이며 그것은 현대의 학습자 중심 교육의 이론적체계라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중요한 의미는 과정중심(process-oriented)(홍원표 외, 2010)이며,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공교육 현장은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기다려 주기보다 입시위주의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에 바쁘다. 학습자들은 성적에 따라서 인격까지 판단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으며 유쾌하고 즐거운 학습보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교육 현장에 코메니우스의 자연을 따르는 교수-학습 방법(구경선, 2005: 132-135)을 실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성장수준에 맞추어 학습하도록 인지능력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고, 스스로 배우고 싶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 방법을 학교수업에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현장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 학습자가 서로의 인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동료들과 협력하여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가는 수평적이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학습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즉, 학교는 교과시험 성적만으로 한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내용을 분석, 적용, 종합, 창조하는 인지역량과 공동체적인 협력과 같은 인격적 연결을 중시하는 사회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이미 시작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필수역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인공지능의 도입은 필연적이며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가 교육혁신과 경제성장에 직결된 문제일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하면서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개개인의 역량과 수요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주호 외, 2021: 21-29). 즉, 개인별 성장 수준에 맞추는 코메니우스의 자연을 따르는 교수-학습 방법의 실천적 적용이 수월진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학습에 인간성 존중과 배움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습 방법이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교실수업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고통이 없고 즐겁고 유쾌한 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인간성을 존중을 받으며 자신들의 성장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본다.

V. 나가는 말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서 찾은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공동체라는 인식이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의 삼중관계의 공동체를 말한다. 교육은 삼중관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책(자연, 인간 정신, 성경)을 세 가지 눈(감각, 이성, 믿음)을 사용하여 배울 수 있는 온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습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지식의 올바른 사용(chresis)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지구 온난화, 코로나 19 등 전 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며,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사회개혁과 구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재의 지구 온난화, 코로나 19 사태 등을 통하여 인류가 깨달은 교훈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의 결과가 재난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비싼 값을 치루면서 인류는 창조세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인식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 현장은 다양한 교육문제들이 재생산되고 그로인하여 비싼 값을 치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육문제들의 근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 힘쓰기보다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인재상 재정립 등 외재적 가치를 높이는 일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 인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교훈 삼아 이제 공교육 현장의 교육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공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한국 공교육 현장의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적 제언을 하였다. 기독교적 제언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 사용되는 이 시대에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육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였다.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진단을 위해 첫째,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것을 통해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현시점에서 교육개혁의 원동력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음 세 가지로 진단하였다. 진단1, 한국 공교육 현장은 범교육(Pampaedia)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교육의 원천목적을 상실하였다. 진단2, 한국 공교육 현장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온전한 교육이 아닌 분절된 교육을 하고 있다. 분절된 지식교육으로 인하여 하나님, 인간 정신, 자연을 이해하고, 배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보다는 교육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진단3, 한국 공교육 현장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배움의 즐거움 보다는 성적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위에서 진단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독교적 제언을 하였다. 제언1, 한국 공교육 현장은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의 원천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교육의 본질이 되는 인간다운 인간(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기 위한 교육의 원천목적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제언2,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교육에 자연, 인간 정신뿐 아니라, 성경을 포함하여 총체적 지식을 교육하고 인간의 총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온전한 교육이다. 제언3, 인간성 존중과 배움의 즐거움을 위한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습 방법이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야 하며,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은 총체적 지식을 인간성 존중과 배움의 즐거움을 기반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공동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위한 필수역량은 인격적인 연결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협력과 같은 사회역량이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제언한 내용을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다종교 사회이고, 공교육은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이며 공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 공교육 현장의 학습자는 지식을 배움에 있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다. 교육계에 속한 기독교인의 중요한 사명은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과 공교육의 창시자 루터의 공교육 사상과 같이 공교육을 기독교교육 위에 세워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기독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실질적으로 공교육 현장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주제 -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으로 나누어 분석, 진단, 제언 - 가 방대하여,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근대 교육현장의 개선과 개혁에 공헌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현대 한국 공교육 현장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학제간 깊이 있는 연구와 적용 방안은 아쉽지만 다음 연구로 넘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선보·김희선 (2005).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의 형성배경. *교육문제연구*, 23, 1-27.
- [Kang, S. B. and Kim, H. S. (2005). The theoretical roots of comenius's educational thought.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3, 1-27.]
- 강영택 · 유재봉 · 박상진 · 고원석 · 김재춘 · 박종보 · 임경근 · 장화선 (2013). **종교교육론-학교에서의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학지사.
- [Kang, Y. T., Yoo, J. B., Park, S. J., Ko, W. S., Kim, J. C., Park, J. B., Lim, K. G., Jang, H. S. (2013). *Religious Education Theory -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Seoul: Hakjisa, 2013.]
-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각론 확정-발표**(보도자료 2015. 9. 23).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5). *Confirm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Overview* (Report on September 23, 2015). the Department of Education]
- 구경선 (2005). **코메니우스 교육과의 만남**. 서울: 교육아카데미.
- [Koo, K. S. (2005). *Meeting with Comenius Education*. Seoul: Education Academy.]
- 김기숙 (2003). 코메니우스(J. A. Comenius)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의. *기독교교육정보*, 6, 213-239.
- [Kim, K. S. (2003). The Modern Meaning of Johann Amos Comenius' Educational Theor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 213-239.]
- 김명희 역. (2012). **가르침**. Palmer, P. J. (2008). *The Promise of Paradox: A Celebration of Contradictions in the Christian Life*. 서울: 아바서원.
- [Kim, M. H. (2012). *Teaching*. Seoul: Abaseowon. Trans. Palmer, P. J. (2008). *The Promise of Paradox: A Celebration of Contradictions in the Christian Life*. San Francisco: Jossey-Bass]
- 김선아 (2013). 포스트모던시대에서의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 *기독교교육정보*, 36, 97-126.
- [Kim, S. A. (2013). The Re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enius' Educational Theory in the Age of Postmodernism: For Formulating New Paradigm of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Personalit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6, 97-126.]
- 김지현 (2010). 대학 역량기반 교육혁신 담론의 교육학적 조건. *교육원리연구*, 15(1), 87-126.
- [Kim, J. H. (2010). The Conditions of the Educational Discourse on the Competency-Based Educational Innovation i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 15(1), 87-126.]
- 김은권·이경영 역. (1998). **세계도회**. Comenius, J. A.(1658) *Orbis Sensualium Pictus*, 서울: 교육과학사.

- [Kim, E. k., Lee, K. Y. (1998). *Orbis Sensualium Pictus*. Seoul: Education and Science History. Trans. Comenius, J. A. (1658). *Orbis Sensualium Pictus*. published in Pressburg/Pozsony, Kingdom of Hungary]
- 김찬호 역. (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Palmer, P. J. (2011).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경기: 글 향아리.
- [Kim, C. H. (2012). Politics for the woeful. gyonggido: geulhangari. Trans. Palmer, P. J. (2011).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San Francisco: Jossey-Bass]
- 백혜조·박지혜 (2014).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나타난 가치 분석.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0(3), 59-77.
- [Baik, H. J. and Park, J. H. (2014). Value Analysis on the Ideal of Educated Person in Korean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3), 59-77.]
- 서미경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심 교육 쟁점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Seo, M. K. (2020). A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 to 2015 National Key Competency-Based Curriculum Issue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 성인경 (2003). **프란시스 셰퍼 읽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Sung, I. K. (2003). *Reading Francis Shepherd*. Seoul: Yeyoung Communications Co.]
- 신병준·노상우 (2003). 코메니우스의 교사상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8(2), 45-65.
- [Sin, B. J. and No, S. U. (2003). A study on the J. A. Comenius' Perspective of Teacher. *Zeitschrift fuer paedagogische Forschung*, 8(2), 45-65.
- 신춘호 (2015). 코메니우스 '일체지'의 인식론적 해석. **도덕교육연구**, 27(3), 19-36.
- [Shin, C. H. (2015). A Study on the Concept of 'Pansophia' of Comenius : Its Implications for the Contemporary Education.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7(3), 19-36.]
- 안영혁 (2009).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적 영성. **신학지남**, 76(4), 240-263.
- [Ahn, Y. h. (2009). Comenius' Pedagogic Spirituality.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76(4), 240-263.]
- 이종태 역. (2008).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Palmer, P. J. (1993). *To known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 [Lee, J. T. (2008). Spiritu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Seoul: Korean Christian Student Council. Trans. Palmer, P. J. (1993). *To known as we are known :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SanFrancisco: HarperOne]

양금희 (2001). **근대 기독교교육 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Yang, G. H. (2001) *The modern idea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Korea Presbyterian Publishing Press.]

오인택 (1980). J. A. Comenius의 범교육(Pampaedia)이론. **신학사상**, 29, 312-350.

[Oh, I. T. (1980). J. A. Comenius's theory of pan-education (Pampaedia). *Theological Thought*, 29, 312-350.]

오춘희 (1998). 코메니우스. 연세대학교 철학연구회 편. 위대한 서양사상가들 II. 서울: 서울과학사.

[Oh, C. H. (1998). Cominius. In Yonsei University Philosophy Research Association(Ed), *Great Western thinkers II*. Seoul: Seoul Science History.]

이숙중 (1990). 코메니우스의 신학적 인간관과 인식론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70, 758-794.

[Lee, S. J. (1990). A study on theological human view and epistemology of Comenius. *Theological Thought*, 70, 758-794.]

이숙중 (2006).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서울: 교육과학사

[Lee, S. J. (2006). *The Educational Thought of Comenius*. Seoul: History of Education and Science.]

이시용 (2004).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교육논총**, 24, 73-95.

[Lee, S. Y. (2004). A Study on the Educational Thoughts of Comenius. *The Journal of Education*, 24, 73-95.]

이주호·정제영·정영식 (2021). **AI교육혁명**. 서울: 시원북스.

[Lee, j. H., Jung, J. Y., Jung, Y. S. (2021). *AI Education Revolution*. Seoul: Siwonbooks.]

유화자 (2002). John Amos Comenius의 교육론과 기독교교육에 대한 그의 공헌. **신학정론**, 20(2), 507-543

[Yoo, H. J. (2002). Comenius' education and his contribution to Christian education. *Hapshin Heological Journal*, 20(2), 507-543.]

윤영순 (2009). 듀이의 경험개념에서 본 지식의 총체성과 교과 의미,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Youn, Y. S. (2009). The nature of subject matter with respect to the whole knowledge based upon John Dewey's concept of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정일웅 (2003).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 이론에 관한 연구 II: 범학교론, 범교재론, 범교사론 중심으로. **신학지남**, 70(4), 11-35.

[Jung. I. W. (2003). A Study on the Theory of Pan-Education in Comenius II: Focused on the

Theory of Pan-School, the Theory of Pan-School and the Theory of Pan-School.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11-35.]

주영흠 (2001). **서양교육사상사**. 서울: 양서원.

[Joo, Y. H. (2001). *The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Seoul: Yang Seowon.]

정호표 (2002). **현대교육철학**. 경기: 교육과학사.

[Jeong, H. P. (2002). *Modern Philosophy of Education*. Gyeonggi: History of education and science.

차기석 (1990). **서양근대 사상가론**. 서울: 문음사.

[Cha, K. S. (1990). *Modern Western Ideologies*. Seoul: Munumsa.]

한미라 (2014). 근대 교육의 사도 코메니우스. **기독교교육정보**, 43, 353-378.

[Hahn, M. R. (2014). John A. Comenius, the Apostle of Modern Education : Based on the Text of Unum Necessarium.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3, 353-378.]

홍원표·이근호·이은영 (2010).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 연구 :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연구 보고 RRC 2010-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ong, W. P. et al. (2010). *A Case Study on the Field Applic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Foreign Countries: Focusing on the Cases of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Study Report RRC 2010-2). Th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홍은광 (2010). **파울로 프레이리, 한국교육을 만나다**. 서울: 학이시습.

[Hong, E. W. (2010). *Paulo Prairie Meets Korean Education*. Seoul: A Study of Haki Trial.]

홍은숙 (2002). Parker Palmer의 지식교육론 연구. **한국교육**, 29(2), 573-594.

[Hong, E. S. (2002). A Study of Parker Palmer's Views on Knowledge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9(2), 573-594.]

홍은숙 (2010). 실천전통 교육관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교육의 목적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 47, 225-247.

[Hong, E. S. (2010). A curriculum design for practices-based education: A study on the educational objectives.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7(0), 225-247.]

Ashworth, P. D, & Saxton, J. (1990). On competence.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14(2), 3-25.

Comenius, J. A. (1910). *The Great Didactic*, (M. W. Keatinge trans.) New York: Russell & Russell.

Comenius, J. A. (1998). *Allverbesserung(Panorthosia)*. (F. Hofmann trans.). Frankfurt Am Mein: Peter Lang.

Department for Education (2011). *The frame work for the national curriculum: A report by the*

- expert panel for the national curriculum review*.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 Goncz, A. (1997). Future directions for vocational education in Australian secondary school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5, 77-108.
- Hirst, P. H. (1965).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 In R. D. Archambault(Ed.). *Philosophical analysis and education*(pp. 113-138),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Hyland, T. (1997). Reconsidering competenc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1(3), 491-503.
- Monroe, P. (1969). *A Brief Course in the History of Education*. N.Y: The Macmillan Company.
- Murphy, D. (1995). **Comenius: A Critical Reassessment of His Life and Work**. Dublin: Irish Academic Press.
- 국민일보 2020. 06. 19일자. “공교육, 우주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배움터”
http://m.kmib.co.kr/view_amp.asp?arcid=0924143313. (검색일 2021.02.17.)
[“Public education, a place of wisdom for insight into the universe as a whole universe”, Kookmin Ilbo(2020.06.19.), Retried form http://m.kmib.co.kr/view_amp.asp?arcid=0924143313. 2021.02.17.)]
- 교육3.0뉴스 2020.06.15.일자. “공부 그리고 성공과 행복에 관한 물음”
<http://www.edu3.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 (검색일 202103.14)
[“Study and questions about success and happiness”, Education3.0News(2020.06.15.), Retried form <http://www.edu3.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202103.14)]
- 중앙일보 2021. 01. 05일자.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린 교실, 교육격차 더 키웠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961960#home>, (검색일 2021.02.09)
[“The classroom, which was waiting for Corona to end, widened the educational gap”, JoongAng Ilbo(2021.01.05), Retried form <https://mnews.joins.com/article/23961960#home>,(2021.02.09.)]
- MBC뉴스 2019. 10. 29일자. “공교육 붕괴되고 강남만 유리?...’정시’ 확대 논리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69393_28802.html, (검색일 202103.14)
[“With the collapse of public education and the advantage of Gangnam?...the logic of expanding CSAT is”, MBCNews(2019.10.29), Retried form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69393_28802.html(202103.14)]
- Newline 2020. 10. 21일자.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 우리나라의 변화.”
<https://newline-interactive.com/ko/>. (검색일 2021.02.12.)
[“The On-Tact Era Beyond Untact, the Change of Korea”, newline(2020.10.21.), Retrieved from <https://newline-interactive.com/ko/>(2021.02.12.)]

The Science Times 2020.10.08.일자. “소통 부재 교육,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소통-부재-교육-역량-중심으로-전환해야/> (검색일 202103.14)

[“Lack of communication education, shift to competency-based”, The Science Times(2020.10.08.),
Retried form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소통-부재-교육-역량-중심으로-전환해야/>
(202103.14)]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The Christian Approach to Fundamental Problems in Korean Public Education: Focused on Comenius's Educational Thought

서미경(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통하여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사상 형성 요인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들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현시점에서 교육개혁의 원동력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의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셋째,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진단과 제언을 짚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단1. 한국 공교육 현장은 범교육(Pampaedia)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교육의 원천목적을 상실하였다. 제언1. 한국 공교육 현장은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의 원천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교육의 본질이 되는 인간다운 인간(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기 위한 교육의 원천목적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진단2. 한국 공교육 현장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온전한 교육이 아닌 분절된 교육을 하고 있다. 분절된 지식교육으로 인하여 하나님, 인간 정신, 자연을 이해하고, 배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 보다는 교육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제언2. 공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교육에 자연, 인간 정신뿐 아니라, 성경을 포함하여 총체적 지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온전한 교육이다.

진단3. 한국 공교육 현장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배움의 즐거움 보다는 성적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제언3. 인간성 존중과 배움의 즐거움을 위한 코메니우스의 교수-학습 방법이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필수역량은 인격적인 연결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협력과 같은 사회역량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공교육, 교육의 원천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